

이제 품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45번부터 나가면 되죠?

용언을 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용언이 워낙 많아서 세 번째가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일부러 용언을 잘랐는데 거의 다 했습니다.

어미 쪽이고 그 어미 쪽에서 이제는 전성어미 쪽을 다뤄보려고 해요.

45번을 보게 되면 결국 이 문제 아닙니까.

전성어미라고 하는 건 성질을 바꿔주는 것.

그런데 이거를 잘 알고 있다는 건 결국 내가 어떤 단어를 봤을 때

명사인지 아니면 동사나 형용사 쪽인지 관형사인지 아니면 동사나 형용사인지.

이쪽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성어미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중요한 건 이 전성어미들이 어간에 붙어서 품사를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꾼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 어간이 동사나 형용사 어간이었으면

이 전성어미들이 붙었다고 해서 품사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죠.

어차피 어미이기 때문에.

활용의 한 일종일 뿐입니다.

그러면 품사는 못 바꾸지만, 성질은 명사처럼, 중요한 건 처럼이야.

처럼 쓰이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관형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부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명사형 전성어미로 어떤 게 있습니까?

-기, -음.

이렇게 매개모음 받침이 있으면 들어오고 없으면 ㅁ만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있는 거.

그다음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어떤 거 있어요?

-은, -을, -던, -는 있죠?

여기 은은 또 매개모음이기 때문에

앞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 판단되는 겁니다.

이때를 또 한 가지 주의해줘야 되는 건 -는의 경우에는 좀 제한적이죠.

형용사 어간 뒤에 못 붙죠.

예쁜는, 이렇게 쓸 수 없는 겁니다.

제한적이고.

부사형 전성어미로 어떤 거 있어요?

-게, -도록.

이런 거 등등 있긴 하지만

부사형 전성어미 쪽은 출제하기 그렇게 쉬운 쪽은 아니에요.

조금 문법적인 해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좀 주목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45번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명사형 전성어미로 -(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명사화 접미사.

명사형 전성어미로 -기, -(음)이 있어요.

그런데 명사화 접미사로 -기 있고 -(음)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추가로 -이 같은 것도 있고, 명사 만들 수 있는 거로.

-게도 있고, 등등등 다양합니다.

접미사는 양이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헷갈려하는 건 이거야.

그러면 -기나 -(음)이 붙었을 때 이걸 명사로 봐야 돼,

아니면 동사형 형용사로 봐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사형 전성어미 붙으면 품사 바뀌요, 안 바뀌요?

못 바뀌요.

그런데 접미사가 붙으면 품사가 명사가 되는 거야.

이러면 품사가 명사가 돼.

어떻게 판단하냐, 고민할 거 없어요.

어쨌든 보세요.

예를 들면 A기, 이런 단어가 있어.

떡기, 이런 단어가 있어.

자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어휘가 앞에 수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달리기야.

그러면 이 달리기는 명사냐 아니면 동사냐.

달리다의 활용형이냐 아니면 명사로 볼 거냐.

둘 다 가능은 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가 결국 명사형 전성어미인지

아니면 명사화 접미사인지를 판단하려면

앞에 수식을 해주고 있는 놈 아니면 없으면 넣어주고.

봅시다.

만약에 애가 명사라고 한다면, 아니면 애가 동사라고 한다면.

반대로 해볼게요.

수식을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이 들어가겠죠.

동사라고 한다면 뭐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함께 달리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붙는 거죠.

빨리 달리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쓰였다고 한다면 애네들은 부사이기 때문에

앞에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 놈이니까 이 달리기는 동사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때의 기는 접미사가 아닌 전성어미로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만약에 이 앞에 관형어.

우리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관형어잖아.

관형어가 나왔다.

그러면 애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가 되는 것이다?

애 같은 경우는 명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친구의 달리기는 멋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멋진 달리기 시합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지.

그러면 애는 관형격 조사나 아니면 관형사형 전성어미 같은 걸
넣어준 구조이기 때문에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꾸밈 받고 있는 달리기는 뭐로 본다?

명사로 본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기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기이기 때문에

그때 명사화 접미사 기로 보겠다.

45번은 이 문제입니다.

빨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앞에 거 봐.

㉠ 앞에 뭐 있어?

홀로.

품사 뭐야? 부사어.

그러면 부사어의 수식 받고 있으니까 이때의 살기는 뭐가 되는 것이다?

용언이 되는 거.

즉 동사의 활용형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때의 기는 명사형 전성어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홀로.

앞에 거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충분히 잠.

충분히는 뭐예요? 부사어죠.

즉 충분히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잠의 형태로 바꿔줬을 뿐이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때의 잠은 뭐가 된다? 동사가 되는 거고

이때의 잠을 만들어주는 \square 은 명사형 전성어미로 보시면 되는 거죠.

역시나 그러면 ㉠이나 ㉡은 전부 다 뭐로 볼 수 있다?

명사형 어미가 붙은 상태.

다음 ㉢, 시원한 얼음.

그러면 관형어잖아.

관형어 구성이죠?

그러면 ㉔은 명사가 돼버립니다.

다음, 건전한 놀이.

건전한 관형어 구성이죠?

그러니까 놀이를 꾸며주고 있는 관형어가 앞에 있다는 걸 봤을 때

놀이를 만들기 위한 이는 뭐가 되는 것이다?

명사화 접미사.

그런데 이는 어차피 명사화 접미사예요.

그러니까 기나 음이 고민되는 거지 이는 고민할 게 없죠.

다음 ㉕, 아름답기.

매우 아름답기.

그 앞에 매우 뭐다? 부사죠.

그래서 부사의 수식 받고 있으니까 애는 뭐가 되는 것이다?

동사 또는 형용사.

아름답다는 형용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답지에 보기에 앞에 예문 안에 부사어나 관형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넣어보세요.

없으면 넣어보세요.

만들어 넣어봐.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거 넣어봐.

그랬을 때 어울리는 걸 판단하시면 돼요.

어울리는 거 보고 이거 지금 부사어를 넣어봤더니 어울리네?

그러면 애는 용언인가 보다.

애는 관형어 넣는 게 어울리네?

애는 그러면 명사로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넣어보면 돼요.

다음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탐구 과정에서 ㉑과 ㉒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갔을 때

활용정보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앞에 불규칙 활용과도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에 보게 되면 이거죠.

듣다 더하기 은이 붙었고요.

그다음에 쏘다 더하기 은이 붙었을 때

애는 음악을 들은, 쏘은, 이렇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도 결국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이기 때문에

어간의 불규칙성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ㄷ 받침으로 썼을 때 불규칙 용언인 경우에는 ㄹ로 변하고

아닌 경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1번 아니면 2번으로 가줘야 되겠고

그다음 내밀다, 부풀다 이런 단어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밀은 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풀은 마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어떻게 된다?

ㄹ 뒤에는 아예 매개모음 으가 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봅시다.

우리가 관형사형 전성어미인데 ㄴ이 올 거냐 아니면 은이 올 거냐.

여기 은은 매개모음이라고 합니다.

언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앞에 ㄱ, ㅅ, ㅂ과 같이

받침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매개모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가다, 오다, 자다와 같이 간 사람, 온 사람, 잔 사람과 같이

앞에 받침이 없는 어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매개모음 으가 오지 않고 ㄴ만 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죠.

그러면 ㄹ 받침은 어떡하냐.

ㄹ 받침의 경우에는 받침이 있으니까 은이 와야 되냐.

애가 예외라는 겁니다.

그래서 ㄹ 받침은 받침으로 취급 안 하겠다는 거죠, 활용할 때.

그래서 애를 이쪽으로 함께 꺼주게 되면서

이렇게 ㄹ 받침 어간이 왔을 때는 곧바로 ㄴ을 붙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 ㄹ 규칙 활용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어간 뒤에 ㄴ이나 ㅂ이나 ㅅ이나 오가 올 경우에는 ㄹ이 빠져요.

따라서 이 ㄴ이 와버렸을 때 ㄹ은 빠집니다.

결과물이 뭐가 나와야 된다?

내민 손, 부푼 마음으로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언제라도.

ㄹ 받침 쓰고 있는 건 다 똑같아.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녹이 슬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녹이 슬다에 으를 못 써요.

그냥 ㄴ 오는 거야.

그러면 ㄹ 빠져.

그래서 녹이 슬, 이렇게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그을다.

햇볕에 그을다, 라고 했을 때 그을은 얼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을다가 원형이니까 으가 아예 안 와요, ㄴ이 와요.

그러면 애는 빠져야 돼요.

그래서 햇볕에 그은 얼굴,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색하죠, 물론.

여러분의 언어습관하고 다를 테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의 언어습관이

잘못 돼 있는데 그걸 정답이라고 할 순 없어요.

규칙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용언의 어간이 ㄴ 받침을 쓰고 있다, 뭐가 온다?

ㅇ가 오는 게 아니라 ㄴ이 곧바로 와버리고

그때 이 조건이 와버리면 어간의 ㄴ은 빠지게 되는 것이 규칙적 활용이다.

따라서 46번은 2번이 답이 되겠군요.

다음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봤던 게 이렇게 전성어미와 접미사를 결합시켰을 때

이렇게 헛갈려하는 문제.

이 명사 쪽의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런 건 더 쉽죠.

관형사냐 아니면 형용사냐.

관형사냐 아니면 용언이었느냐를 던지는 질문은

지금 애네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관형어 구성이라면

개는 형용사, 동사로 판단하면 되겠지만

원래 관형사는 형태가 고정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애네 문제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먼저 ㉠ 가보세요.

정원의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을 사전에서 찾으려면 뭐 찾아야 돼요?

만약에 사전을 찾을 때 그 단어 그대로 찾을 수 있는 거라면

품사가 관형사겠죠.

즉 ㉡ 볼까요?

웬 말이, 웬.

사전 찾을 때 웬을 그대로 봐야죠.

웬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웬은 뭐다? 관형사.

그에 반해 ㉠의 아름다운은 사전에 아름답다를 찾아야 될 단어예요.

따라서 이 아름답다의 활용형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죠.

다음 ㉢, 새 가구.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구를 꾸며줄 수 있는 아예 고정 되어 있는 단어죠?

관형사.

모든 사람, 모든 고정되어있죠? 관형사.

빠른은 어떻습니까? 빠른 일처리.

빠르다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형용사가 활용이 된 거죠.

이렇게 ㄴ과 같은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여서.

그렇다면 정답은 2번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출제되면 헛갈린다고 말씀을 드려요.

보게 되면, 관형사야, 아니면 동사나 형용사야?

이 질문.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건드릴만한 내용은 딱 두 개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뭐냐, 다른과 다르다.

그다음에 현과 혈다의 활용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이나 현은 관형사로도 존재해요.

관형사로도 존재합니다.

물론 더 있어요, 사실.

조금 더 있는데 거기까지 언급 안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다르다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으로 활용이 되죠.

또 혈다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똑같아.

ㄹ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은 안 오고 ㄴ 곧바로 오고

ㄴ 오게 되면 ㄹ 빠져요.

그러면 결과물 뭐 나와요?

현 나와.

그러면 다른이나 현의 형태를 보고 나서 관형사야, 아니면 동사, 형용사야?

만약에 다르다면 형용사고 혈다면 동사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치환 또는 대체.

아까 전에 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관형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새 옷할 때.

그 단어가 올 자리는 사실 현도 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현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새를 넣어봐서

뜻은 달라지겠지만 어울린다면 애는 관형사다.

또 다른 이야기해 볼게요.

다른 자리에 판이라고 하는 관형사를 넣어봤을 때 어울리면

애는 관형사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방법 하나랑.

그런데 문제는 이걸 넣어봤는데

이거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이걸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동사나 형용사는 뭐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앞에 똑같아.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죠.

넣어봐.

그러면 부사어의 수식이 어울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나 형용사로 보는 거죠.

안 어울리면 뭐가 된다? 관형사로 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얼굴이 다른 쌍둥이이다.

이런성 쌍둥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의 다른은 뭐가 된다?

관형사냐 아니면 형용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때의 다른은 관형사냐 아니면 형용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에 거 봅시다.

우리는 얼굴이 다른 쌍둥이이다.

여기에 판 넣을 수 있습니까?

얼굴이 판 쌍둥이이다?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해볼까요?

얼굴이 매우 같은 거 넣어볼 수 있죠.

수식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애는 뭐가 되는 것이다?

다르다의 활용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거 볼까요?

그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어울려요?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뭘 넣어줄 수 있어요?

매우.

그는 나와 매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다른이나 이런 다른 전부 다 뭐에 해당해?

여기에 나와 있는 형용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형용사의 다르다의 활용형.

즉 애네들은 품사가 형용사 이래야지 애네를 관형사, 이렇게 볼 수 없죠.

그는 한식이 아닌 다른 음식은 못 먹는다.

한식이 아닌 매우 다른 음식?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우의 수식이 어색하죠?

그다음 한식이 아닌 딱 음식, 이런 거 어울린단 말이야.

즉 이 자리가 딱이랑 대체가 되고

그다음에 뭔가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걸 넣어서 판단하시면 돼요.

헌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새 옷을 샀다.

헌 옷을 샀다, 당연히 관형사죠.

새 옷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을 헌 자리에, 이런 식으로.

건물을 헌 자리에 공원이 들어섰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을 헌 자리, 이거는 헐다예요.

서술성을 지니고 있었던 거죠.

건물을 새 자리,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새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애는 뭐가 된다? 동사인 헐다의 활용형이 되는 겁니다.

동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헐 자리에, 건물을 빨리 헐 자리에,

건물을 한 번에 헐 자리에.

이런 식으로 뭔가 부사어를 넣어줄 수 있는 자리가

여기에 또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로 구분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거 가보도록 할게요.

48번.

쉽죠.

먼저 이 4개, 새로운, 새, 빠르게, 빨리를

A는 문장 성분에 따라 나누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관형어.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나 ㉡은

뒤에 나와 있는 글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관형어.

그에 반해 ㉢이나 ㉣은 달리다, 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어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1, 2, 3 중의 하나가 되겠네요.

그런데 B를 보면 품사로 나눈대요.

이때 우리는 판단하셔야 돼요.

새로운은 관형사냐 아니면 새롭다의 활용형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센스가 있다면 관형사도 마치 보조사처럼

문제를 풀고 보다 보면 좀 많이 익혀지는 편입니다.

관형사가 형태가 고정되어있는.

그리고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들이데 양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까 새, 현, 옛, 이런 거 말고

여러분에게 더 이야기해 봐.

이러면 잘 이야기를 못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많이 떠오르는 게 없을 겁니다.

새로운, 이런 거 관형사 아니에요.

새롭다의 활용형입니다.

즉 새롭다는 형용사가 되겠죠?

다음 새 글, 이건 관형사죠.

형태가 고정되어있는 새, 관형사.

다음 ㉠, 빠르게.

품사 뭘까요?

부사요? 그럴 수 없죠.

빠르다.

바로 형용사의 활용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 형용사, ㉢이 관형사,

㉣ 형용사, ㉤에 빠리는 뭐에 해당하는 거죠? 부사죠.

이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인데 보세요.

지난 번에 이거로 설명드렸어요.

깊게랑 깊이.

땅을 깊게 밟다, 땅을 깊이 밟다.

이렇게 나갔을 때 둘 다 기능은 밟다, 라고 하는 걸

꾸며주는 부사어로 쓰이는 거지만 실제 부사는 이놈이다.

애는 부사요, 애는 깊다.

형용사로 보면 된다.

그러면 뭐의 차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뒤에 나와 있는 게냐, 아니면 이냐로 보면 된다고 했죠?

이 게는 대표적으로 부사형 전성어미예요.

그래서 부사처럼 만들어주는 거지 품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가 들어가는 거.

이런 건 외워주시면 돼요.

-이, -히의 형태로 부사어로 쓰이면 품사는 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는 게 어떤 단어에 이를 붙여야 되냐 히를 붙여야 되냐.

이런 고민할 수 있는데

그냥 이, 히 붙어서 꾸며주는 기능 하면 그건 부사예요.

아까 기나 음이나 이런 건 헛갈리잖아요.

어릴 땐 전성어미, 어떨 때는 접미사.

그런데 애는 이 접미사로 정해진 게 이, 히.

그건 이렇게 전성어미로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구분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달렸다.

빠르게 달리다, 라고 하면 이놈은 뭐가 되는 거예요?

품사, 부사 아니예요.

왜? 게가 붙었으니까 용언을 지금 부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줬구나.

따라서 애는 형용사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빨리 달리다 하면 애는 뭐가 된다? 부사.

그러면 이제 또 선생님, 이나 히가 붙은 게 아닌데 왜 부사인가요?

이렇게 된 거죠.

불규칙 용언.

그러니까 이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쪽

형태소가 붙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으가 빠집니다.

그리고 어간 쪽에 ㄹ이 덧붙어드는 어간 불규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런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나왔다고 해서

이거 접미사 이 안 들어갔잖아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라는 접미사가 온 상태에서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품사는 뭐가 된다? 부사가 되는 거죠.

그다음 4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 품사 판단해보래요.

일단 A에 이 사과.

띄어 썼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애는 지시관형사가 되겠죠.

다음 그 책 역시 책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지시, 관형사입니다.

그다음 C, 여기가.

조사 붙어있어요.

가 조사 붙어있어요.

그러면 애는 뭘니까? 대명사가 되는 거죠.

지시 대명사.

그다음에 D, 이리 가까이 오게.

이리 띄고 가까이 띄고 오게.

그러면 이리 오게.

오다, 라는 걸 꾸며주고 있는 지시 부사.

다음 E, 그리 물건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보내다가 되는 거죠?

역시 지시 부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50번 가보도록 하죠.

지금 49번, 50번 이런 데는 동일한 형태인데 품사가 다르게 쓰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단어, 같은 단어가 품사 통용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50번,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만 골라보래요.

㉠은 칠 개월할 때의 칠이었어요.

그러면 애는 뒤에 개월은 단위성 의존 명사니까 칠은 뭐가 된다?

수관형사.

꾸며주는 겁니다.

단위성 의존명사하고 수관형사.

(가)는 다섯 판.

판이라고 하는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다섯, 수관형사가 들어갑니다.

팔 년.

팔 띄고, 년이죠?

그러면 년이라는 역시나 횃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위성 의존 명사,

꾸며주고 있는 팔, 수관형사죠?

정답은 그러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는 뒤에 해당합니까?

하나 사 왔대요.

토마토를 하나 사 왔다.

누구 코에 붙인다고 하나만 사 오냐.

폼사 뭐예요? 수사.

선생님, 왜 수사입니까?

아예 안 넣어서 그렇지, 넣어보면 되잖아.

조사를 넣을 수 있어요, 격조사를.

그 이야기는 여기는 수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라) 이야기해볼게요.

셋째.

만약에 셋째 선표하고 뭐가 되어야 한다.

첫째, 둘째, 셋째하고.

그러면 애는 수사야.

우리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양을 나타내는 수사 양수사도 있지만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도 있거든요.

그러면 애는 서수사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셋째, 라고 하는 단어가 수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애가 뭐로도 쓰인다?

명사로도 쓰이고 수관형사로 쓰인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셋째로 예를 들면 예문을 딱 들어서

첫째 ~, 그다음에 둘째 ~ 한 다음에 셋째 ~해야 한다.

이러면 애는 뭐가 된다고요?

순서를 세는 거니까 수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수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셋째 상자에는 뱀이 들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뭐가 된다? 상자를 꾸며주고 있는 관형사.

그러면 수관형사가 된다는 거.

선생님, 세 번째 아니에요?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수관형사 기능을 가져요.

그런데 셋째가, 선생님, 셋째가, 라고 이야기해도 수사일 수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수사는 체언에도 속하는 거고

체언은 조사랑 붙이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셋째가 이번에 합격했다.

이러면 이걸 무슨 의미가 되냐면,

셋째 x의 개념으로 쓰이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셋째 무엇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애는 명사 개념으로 그 대상을 뜻하는 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 셋째는 당연히 우리가 이런 표현했을 때

세 번째 아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셋째 아이,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때는 명사로 보게 돼요.

그래서 셋째 같은 경우는 품사를 여러분이 보시면,

명사, 수사, 수관형사가 다 잡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요.

예를 들면 첫째 가봅시다.

첫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써도 주의하셔야 돼요.

신발은 첫째, 발이 편해야 한다.

이러면 얼핏 보면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서수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명사로 처리가 됩니다.

선생님, 왜요?

잘 들어보세요.

신발은 첫째, 발이 편해야 한다, 라는 이 문장의 뉘앙스를 보면

둘째, 셋째의 개념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무엇보다도.

아예 의미가 새롭게 창출이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발이 편해야 된다.

가장 이게 편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쓰이면 그걸 명사로 처리해버립니다.

이런 거는 정보를 좀 더 주겠지만 쉽지 않겠습니다.

이 수사 쪽이 다른 품사들이랑 헷갈리게 하는 요소가 분명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에 좀 기초 단계로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번 풀어봤고요.

다음에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의 수식 범위를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부사라고 하면

크게 특정 문장 성분을 꾸며주고 있는 문장 부사라는 게 있고

그러면 애는 뒤에 어떤 문장 성분을 꾸미는 건가를 직접적으로 판단해보셔야 돼요.

그런 게 있고.

반대로 이야기했네요.

성분 부사.

특정 문장 성분을 꾸며주고 있는 성분 부사와

그다음에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는 문장 부사를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성분 부사의 경우에는

또다시 나누기를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용언들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게 제일 많죠.

수가 많아요, 성상 부사.

아까 전에 이, 히 들어가 있는 부사들은 다 성상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히 들어가 있는 모든 부사는 다 성상 부사에 해당합니다.

또 매우, 잘, 아주.

이런 것들 전부 다 성상 부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이것도 더 확장하게 되면 우리가 의성어, 의태어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별이 반짝반짝 빛나다 그러면 빛나다를 꾸며주고 있는 반짝반짝 성상 부사.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 계열도 전부 다 이런 성상 부사.

성상 부사 쪽은 종류가 다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부사가 있습니까?

지시 부사.

이리와, 저리가라, 할 때 지시 부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 하고 못, 부정 부사죠?

이 세 가지.

문장 부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양태 부사라고 하는데

양태 부사는 사실 서술어 쪽을 결정 짓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일지라도, 설령 ~라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일까, 이런 식으로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부사어가

결국 뒤쪽에 있는 서술어의 형태를 결정짓는다든지

호응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한다?

양태 부사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나, 그리고, 및과 같은 접속해주는 그런 부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 51번은 바로 뭘 꾸며주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1번 갑니다.

㉠, 매우.

매우 좋아요, 이러면 당연히 좋다, 라고 하는

용언을 꾸미는 기본적인 부사 기능입니다.

그런데 ㉠을 보시면, 매우 빨리 그러면 뭘 꾸며요?

달리다를 꾸미는 게 아니라 빨리, 라고 하는 부사를 꾸미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관형사의 경우에는 오로지 체언만을 꾸미고

또 체언 중에서도 주로 명사를 꾸미는데 국한된 품사예요.

그러나 부사의 경우에는 용언을 꾸미는 거를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놈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부사, 다른 관형사,

다른 체언을 꾸미는데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체언을 꾸미는 상황일 경우
애가 부사인지 관형사인지가 헷갈려요.

왜냐하면 관형사는 어차피 체언을 꾸미고

부사는 원래 용언을 꾸미지만 체언을 꾸밀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 앞에 거는 부사일까 관형사일까.

그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체언 앞에 있는 수식해 주는 단어를 가지고 용언도 꾸며보세요.

그게 꾸밈이 가능하면 부사고 꾸밈이 불가능하면 관형사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먼저 일단 ㉠은 매우가 빨리를 꾸밈니다.

다음 ㉡, 설마 ~할까.

애를 뭐라고 한다? 문장 부사, 양태 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마는 체언을 꾸미는 것이 아니죠.

문장을 꾸밈니다.

㉠에 매우는 부사를 꾸미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 ㉢, 바로 옆에, 라고 했어요.

바로 보았다, 바로 만났다.

이러면 용언을 꾸미는 바로인데

애가 지금 형태상 옆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체언을 꾸미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를 관형사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 바로는 용언을 꾸미는 일을 본래 기능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3번은 체언 꾸미고 있다, 명사 꾸미고 있다, 라고 하셔야 돼요.

다음에 4번이 정답이죠.

아주 차가 아니라 아주 새, 이거죠?

그래서 관형사를 꾸미고 있는 부사입니다.

정답은 4번.

5번에 과연, 정말.

과연과 정말은 문장을 꾸민다고 했는데

과연은 그런데 정말은 그냥 뛰어나다를 꾸미고 있는 거죠.

즉 과연은 문장 부사이지만 정말은 성분 부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죠.

52번, 다음 부사의 특성에 대한 학습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열 평이니까 수량 앞에 쓰였고요.

다음 ㉡은 아까 바로, 옆처럼 체언 앞에 꾸몄고요.

그다음에 ㉢은 설마 ~하지 않겠지, 라는 서술어가 나와 있으니까 부정의 추측 강조.

㉣, 부디의 위치가 고정되어있느냐.

여러분, 이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관형사의 위치는 고정, 체언 바로 앞.

그런데 부사는 어떨까요?

용언을 꾸민다고 해도, 문장을 꾸민다고 해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부사의 이동은 좀 자유로운 편이다.

물론 아주 자유로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령 이 부디의 경우도 부디 민우가 어디에 살고 있든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생각뿐이다만 되는 게 아니라

민우가 어디에 살고 있든 부디 편안하게 지냈으면.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민우가 어디에 살고 있든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생각뿐이다.

쉽표 부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사의 위치는 좀 이동이 자유로워요.

4번은 지식적으로도 사실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번에 뭇은 부정부사죠?

만나다, 라고 하는 용언을 부정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53번, 이제 품사 다 끝났네요.

감탄사 나왔습니다.

이제 감탄사인데 감탄사 사실 지식적으로 낼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원 문제에서 문맥 주고 그다음 담화 형태에서 출제했습니다.

1번에 보게 되면 ㉠에 뭐가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라고 한다면

뒤에 대화가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되겠고요.

2번에 ㉠은 예, 라고 했을 때 긍정의 의미는 맞는데

㉡에 사주세요, 예? 할 때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놀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요구하는 바를 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때 쓰는 용어지 앞에 아빠가 있었는데

갑자기 의식하지 못했다고 놀랄 일은 없어요.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ㅅ 글썽에다 글썽요.

보조사 요를 붙였을 뿐이거든요.

똑같은 감탄사라 할지라도 요를 붙이고 안 붙이고에 따라서

상대를 높이냐 안 높이냐 그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상대에 따라 감탄사 형태도 좀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4번은 문장 중간에 쓰였다 할지라도 이런 걸 우리가 대화할 때

생각이 갑자기 안 난다든지 발표할 때 생각이 안 날 때

음, 저, 이런 거 넣잖아요.

이런 걸 철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다 감탄사 기능입니다.

다음 5번에 보게 되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 라고 할 때는 놀람이 아니지만

여기서는 부정의 아니.

㉢은 부정의 의미니까 완전 다르고요.

이제 단독 품사는 마무리가 됐으니 품사통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품사통용 문제로는 주로 뭐가 나온다?

동사, 형용사 구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같은 단어인데

동사와 형용사를 다 가지고 있는 품사 언급하고 있는 거 보시면,

일단 이거 외워도 되게 쉬워요.

보기에 나와 있는 밝다.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건들죠.

밝다는 동사로 쓰일 때랑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

일단 이런 종류들은 어렵게 내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로 구분할 수 있어요.

-는다가 가능한 경우라면 동사.

그러니까 -는다를 아예 붙여준 상태이거나

아니면 -는이 붙여져 있는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사로 취급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밝는다, 이러면 어떤 뜻이죠?

날이 밝아 오다죠.

밝다는 동사로 쓰이는 경우 그 한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이 밝는다, 이렇게 쓸 때 동사고

그 외에 태양이 밝다, 이렇게 쓰면 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마찬가지 크다도 -니다를 붙일 수 있는 상황이면 크다.

그러면 아이가 잘 크다, 쑥쑥 크다.

이럴 때는 명령도 가능하죠.

쑥쑥 커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나무가 크다와 같이, 건물이 크다와 같이

상태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고요.

있다 같은 경우에는 좀 명령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는 가지고는 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어라, 여기 있으세요.

보통 있으세요보다는 계세요를 쓰겠죠.

그래서 있어라, 이렇게 쓸 때 가능하다면 동사로 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건이 집에 있다.

이렇게 쓰였다면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

결국 궁극적인 건 뭐에 해당할까요?

의미로 판단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문제는 보기에 나와 있는 밝다도

그리고 4번 답지에 나와 있는

크다도 동사, 형용사 구분되는 단어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다음 나머지 1번부터 1, 2, 3, 5번은 전부 다 단독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에 길다, 형용사죠?

짧다도 형용사.

따뜻하다 형용사.

그다음에 늦다는 주의해야죠.

늦다도 동사, 형용사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이 늦는다, 이렇게 쓴다면 그때는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박자가 늦다, 이렇게 쓴다면 그건 또 형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인데 5번 답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늦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늦은 나이에.

이것도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늦는이라고 쓸 수 없죠.

늦는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5번의 경우에는 둘 다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단 주의하셔야 되는 건 늦다도 역시 동사, 형용사 다 가지고 있어요.

여물다도 동사, 형용사 다 가지고 있어요.

몇 단어들이 좀 있는데 일일이 외울 건 아니거든요.

5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통용이 아닌 걸 골라보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 예문 나와 있는 거 품사 다 따져보세요.

그러면 멈춰놓고 따져보세요.

품사 다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을 볼까요?

1번, 아니가겠다.

품사 뭐예요, 아니.

부사죠? 애의 준말이 안이잖아요.

안 가겠다, 부사.

그런데 아니? 이걸 뭘니까?

감탄사죠?

2번 갑니다.

느낀 뒤에 대로.

띄어 썼어요.

그러면 애는 뭐예요? 의존명사.

다음, 말씀대로 붙여 썼어요.

조사. 품사 통용이죠?

다음 3번, 온다던 사람 기회는 온다.

전부 다 오다인데 동사죠.

정답은 3번이었고.

4번에 노력한 띄고 만큼, 의존명사.

그다음에 대궐만큼, 조사.

다음 5번에 사람 다섯이 모였다.

다섯은 수사, 그 밑에 다섯 띄고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관형사가 되는 거죠, 품사 통용입니다.

다음은 마무리입니다.

56번하고 57번인데 애네가 세트 구성이거든요.

그런데 세트 구성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역시나 보면 첫 번째 문단은 우리 다 공부했던 거.

단어의 기준.

단어를 나누는 기준.

형태나 기능이냐 의미에 따라 첫 번째 문단 그 이야기하죠?

두 번째 문단을 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 결국 활용하지 않으면서.

보세요.

㉠, 활용하지 않으면서 사물의 이름 나타내는 거, 체언.

㉡, 활용하면서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거.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거.

그러면 애는 동사나 형용사를 이야기하는 용언이죠.

㉢, 활용하지 않으며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거.

그러면 이게 수사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 명사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활용하지 않으면서 이름 이야기하는 거니까 명사.

활용하면서 사물의 동작, 작용이니까 동사.

㉢은 수량, 순서니까 수사.

다음에 활용하지 않으며 앞말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 조사 이야기하는 거죠?

㉔ 활용하지 않으며 뒤에 체언 수식, 관형사 등등등.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 56번 풀어보는 건데

1번, 옛날, 사진, 기억.

전부 다 명사죠?

그리고 ㉕ 활용하지 않고

사물의 이름 나타내는 체언에 해당하는 것도 맞죠.

다음 2번, 본이나 떠올랐다.

동사에 해당하는 거고.

㉖, 활용하면서 동작, 작용.

다음 ㉗, ㉘ 하나가 떠올랐다.

수사 맞죠? ㉗.

그다음에 을, 가. 관계언이고 조사 맞죠?

이제 5번, 즐거운을 사전에서 찾으려면 뭐 찾아야 된다?

그대로 못 찾죠.

즐겁다 찾아야죠.

애 관형사 아니죠.

형용사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쉬운 문제네요.

다음 57번,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보기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밝다에 예를 들고 있어요.

품사 통용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문단 좀 읽어봅시다.

이거 좀 까다로운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이 있다 말고 없다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이거를 일부 학자의 경우에는

존재사라고 하는 품사를 하나 만들자, 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품사를 하나 만들자, 라는 주장을 왜 했습니까?

특이하기 때문이겠죠.

일반적인 동사, 형용사랑 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있다는 경우에는 동사, 형용사에 품사 통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품사를 따져보면 없다는 애는 형용사로만 사전에 등재가 되어있긴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는이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동사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네는 형용사로 있다가 쓰일 때나

형용사로 없다가 쓰일 때도

-는은 붙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건, 여기에 없는 물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까지를 외워둬도 좋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보기를 통해 접하는 게 맞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57번을 풀어보면,

4번 D에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

전부 다 형용사로 쓰이는 단어인 거죠.

그러나 보기에 나와 있는 정보처럼 형용사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는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했다는 점이 좀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4번, 상태에 의미를 나타냈고 형용사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건에 맞춰서 확인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품사 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 문제 잘 풀어보시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세요.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이거 내가 뭐였지?

다시 한번 전 강의를 들어보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문제 풀이는 확인의 과정이고 틀렸던 거 복습 안 하면

그냥 강의만 듣고 끝내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문제 풀면 똑같이 또 틀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